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 제조 활동 둔화...관세 위협으로 비용 상승 이유
- Bloomberg: 미국인들, “트럼프, 경제와 인플레이에 집중해야”
- WSJ: 이번 주 미 경제 일정 발표
- CNBC: 연방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 일으키지 않을 것”

#### [미국 금융]

- WSJ: 트럼프의 전략적 비축 발언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등

####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관세로 자동차 가격 1만 2천 달러 인상될 수 있다
- WSJ: 미 관세로 가격 얼마나 인상될까?

#### [물류]

- WSJ: 미국의 선박 건조 산업, 미약하고 오래됐다

#### [주택]

- WSJ: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오일]

- WSJ: 유가 하락...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지연과 미 관세 불확실성으로

#### [글로벌 경제]

- WSJ: 아시아 제조업 경기 확장세...아직 전망은 불확실
- WSJ: 2월 중국의 제조업 활동 가속화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중국 Mixue, 매장 수 기준 세계 최대 외식 체인 등극
- Bloomberg: 메르세데스와 BMW, 택시 앱 FreeNow 매각을 검토 중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WSJ: U.S. Factory Activity Eased as Tariffs Threats Spark Accelerating Costs

##### 미 제조 활동 둔화...관세 위협으로 비용 상승 이유

- 2월 들어 미 제조 활동이 두 달 연속 소폭 확장했으며, 이전 26개월간은 위축 흐름이 지속되었다.
- 공급관리협회(ISM)가 월요일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월 50.9에서 2월 50.3으로 소폭 하락해 시장 예상치인 50.6을 밑돌았다.

- PMI는 여전히 성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을 소폭 웃돌고 있으나, 이는 2년간의 지속된 위축 이후 2개월째 50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 보고서 발표 관계자에 따르면, 2월 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이 안정화됐으나,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력 감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 WSJ 기사

### **Bloomberg: Americans Want Trump to Do More for the Economy, Two Polls Say**

#### **미국인들, “트럼프, 경제와 인플레이에 집중해야”**

-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경제와 인플레이에 대응을 늦추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CNS 뉴스/ YouGov의 어제 일요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멕시코·캐나다 관련 이슈와 연방 공무원 해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응답자의 80%는 그가 경제와 인플레이 등 국내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응답자의 29%만이 트럼프가 인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36%가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CNN이 2월 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40%가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2월 중순(45%)보다 감소했다. 다만, 업무 지지도는 48%로 큰 변동이 없었다.

## Bloomberg 기사

### **WSJ: Broadcom Earnings, Jobs Report, Powell Speech: What to Watch in Markets This Week**

#### **이번 주 미 경제 일정 발표**

- 월요일: S&P 500의 제조 구매관리자지수 발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의 미 경제 언급
- 화요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관세 시행
- 수요일: S&P 및 ISM(공급관리협회)의 서비스 PMI 지수, 연준 베이지북 발표
- 목요일: 미 4분기 생산성 발표
- 금요일: 2월 일자리 및 실업률 발표, 파월 의장 경제 전망 발표

## WSJ 기사

## CNBC: Treasury Secretary Bessent says Trump tariffs won't cause inflation to increase

### 연방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 일으키지 않을 것”

- 연방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인플레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이 해당 관세 부담을 흡수할 가능성을 들었다.
- 트럼프의 관세는 오는 화요일 발효될 예정이다.
- 재무장관은 또한 멕시코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동조해 중국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캐나다는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CNBC 기사

## [미국 금융]

## WSJ: Crypto Prices Jump After Trump Announces Five Tokens for Strategic Reserve

### 트럼프의 전략적 비축 발언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등

-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미국의 가상화폐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solana, XRP, cardano 등 소규모 가상화폐까지 비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관련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수년간 가상화폐를 부당하게 공격해 왔다고 말하며, 이번 비축 계획이 해당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Car Prices Are Poised for \$12,000 Surge on Trump's New Tariffs

### 트럼프 관세로 자동차 가격 1만 2천 달러 인상될 수 있다

- 트럼프의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차량당 최대 1만 2천 달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함께 부품 및 완성차 공급망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컨설팅 업체 Anderson Economic Group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의 경우 최소 4천 달러, 전기차는 그보다 최대 3배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Bloomberg 기사

**WSJ: How Much Do Tariffs Raise Prices?****미 관세로 가격 얼마나 인상될까?**

- 미국의 관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 예를 들어,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재가 많은 식탁보 같은 일반 소비재는 가격 인상이 적은 반면, 이탈리아 와인처럼 대체가 어려운 고세율 품목은 소비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 비디오게임 콘솔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도 대체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WSJ 기사

**[물류]****WSJ: In Shipbuilding, the U.S. Is Tiny and Rusty****미국의 선박 건조 산업, 미약하고 오래됐다**

-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수십 년째 뒤쳐져 있다. 아시아는 매년 수백 척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오일 선박을 발주하고 있다.
- 미국에는 주요 선박 조선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기존 조선소들도 주로 미 해군 선박 수리를 담당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산 수출품의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미 조선업은 노동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1백만 명 이상이 근무했던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WSJ 기사

**[주택]****WSJ: Are Home Values About to Fall? It Depends on the Location****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증가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반면, 동북부와 중서부는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전국적으로 판매용 매물은 팬데믹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더 많은 주택이 매각에 나서면서 공급이 점차 늘고 있다.

WSJ 기사

**[오일]**
**WSJ: Oil Falls on Ukraine Peace Talks, Tariff Uncertainty**  
**유가 하락...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지연과 미 관세 불확실성으로**

-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미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72.43달러(-0.5%), WTI는 69.35달러(-0.6%)로 소폭 하락했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평화 협상 타결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에너지 시장의 제재 완화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계획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는 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중국의 2월 제조업 활동이 가속화되며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연료 수요 회복 기대가 커졌고, 투자자들은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Asia's Manufacturing Gauges Signal Growth But Outlook Remains Cloudy**  
**아시아 제조업 경기 확장세...아직 전망은 불확실**

- 2월 아세안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5로 상승하며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제조업 활동도 회복세를 보였으나, 일본과 베트남은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 아시아 제조업 생산과 신규 주문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Maybank의 경제학자 Erica Tay는 아시아 제조업 성장세가 미국의 추가 관세 시행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주문 증가 때문일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요 둔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모건스탠리 보고서에서는 중국, 한국, 인도, 대만, 베트남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보다 취약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이 기업 신뢰도를 위축시키고 아시아 경제 전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 기사

**WSJ: China's Manufacturing Activity Accelerated in February**

## 2월 중국의 제조업 활동 가속화

- 중국 Caixin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 50.8로 상승하며 3개월 만에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였고, 생산 및 신규 주문도 증가하면서 시장 회복 신호를 나타냈다.
- Capital Economics의 경제학자 Zichun Huang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들이 아시아 수출 국가에서 처럼 추가 관세 부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중국 제품을 구매한 영향이 수출 주문 증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10% 관세 시행으로 이 모멘텀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 경제학자 Wang Zhe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고용 및 가계 소득 불확실성이 높아 내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추가 경기 부양책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Forget McDonald's. This Chinese Fast-Food Chain Is Now the World's Biggest.**

#### **중국 Mixue, 매장 수 기준 세계 최대 외식 체인 등극**

- 미쉐(Mixue)는 지난해 말 기준 45,000개 매장을 운영하며,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제치고 매장 수 기준 세계 최대 외식 브랜드가 되었다.
- 미쉐는 1달러 미만의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판매하며, 평균 이하의 프랜차이즈 비용과 간소한 매장 운영 모델을 통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의 미쉐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해외 시장 확장도 지속할 계획이다.

WSJ 기사

#### **Bloomberg: Mercedes, BMW Are Said to Weigh Sale of FreeNow Taxi App** **메르세데스와 BMW, 택시 앱 FreeNow 매각을 검토 중**

- 메르세데스와 BMW가 공동 소유한 택시 호출 앱 FreeNow를 매각하기 위해 투자은행 라자드(Lazard)와 협력 중이며, 매각 가격은 최대 5억 유로(약 5억 2천백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을 밝혔다.
- FreeNow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밀라노 등 주요 유럽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주요 유럽 도시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버 및 에스토니아의 Bolt Technology OU와 같은 경쟁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인수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 전기차 전환의 어려움 속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는 Athlon 차량 리스 사업 매각을 검토 중이고, GM은 미시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 추진 중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美 4분기 성장률 2.3%, 연간 성장률 2.8%...건조한 성장세 유지  
근원 PCE 물가상승률 2.7%로 상향...연준, 금리인하 더 신중해질듯**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강한 민간 소비를 토대로 한 달 전 속보치 발표 때와 동일하게 2%대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존 발표보다 상향 조정돼 물가 반등 우려를 더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이 2.3%(직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